

주체의 영원한 태양을 우러러 인민은 새해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 넘치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 따뜻한 축복을 보내주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 뜻깊은 새해를 맞이한 천만군민의 마음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끊없이 달려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총정에 의하여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러진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들어서서 사람들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고 통성면역의 한길로 이끌어주시었으며 천만군민모두에게 행복찬 삶을 안겨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듬어 보며 경건히 말걸음을 옮기고있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지 못하였다면 우리 민족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 민족의 향취가 넘치는 오늘날의 실낱을 파인 생각이나 할 수 있었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조선의 100년사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님인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존함과 불멸의 혁명업적으로 빛나는 가장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역사이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으로 들어선 사람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우러러 경건히 인사를 드렸다.

우리는 사람들을 선택 할 수가 없었다. 절세위인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그들을 향해 활짝 웃어주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희망과 포부를 안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인가.

설날이 왔다고 좋아 웃음꽃을 피우는 우리 아이들의 어린 가슴속에는 아마도 올해에도 공부할 잘하여 최우등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갈 줄은 경의가 새겨져있으리라.

조국의 방산을 지켜 지금 이 시각도 전초기에 서있는 초병들은 여기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자기의 마음을 세뇌하며 올해에 꼭 명사수, 명교수의 영예를 쟁취하리라는 맹세를 굳게 다짐고있고 또 우리의 과학자들은 그들대로 새로운 과학연구성과로 조국을 빛낼 총정의 결의를 소중히 간직하고있다.

이 땅에 생을 둔 자식이 천만이듯이 새해를 맞는 우리 인민의 희망과 포부도 천차만별일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희망과 포부에 앞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어있는것은 바로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다.

우리가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은 내각사무국 일군인 백철민동무와 그의 가족이었다. 백철민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르느라 한평생 조국의 민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는것을 다 비치신



절세 위인들의 불멸의 헌신과 애도가 어찌와 정말 가슴뜨거워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랑의 품이 있었기에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기가 오늘과 같이 나라의 경제사명부인 내각의 일군으로까지 성장할수 있었다고, 바로 그래서 새해가 오면 어떻게든 가족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인사를 드린다고 격정을 터치었다.

김철주사범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자제간인 정진, 정경동무들의 심정도 절절하였다.

가족과 함께 태양의 성지를 찾은 그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조국과 인민앞에 쌓으신 영원불멸할 업적이 있기에 후대들을 기우는 교육자가 되고싶은 자기들의 소중한 꿈도 활짝 꽃피울수 있는것이라고 하면서 이곳에 들어서면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들의 행복찬 앞날을 따뜻이 축복해주시는것만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비록 길지는 않지만 소박하고 친정이 넘치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불을 깊은 생각에 이끄었다.

위대한 그 품에 안겨 갈수록은 삶의 자욱을 새긴 사람들은 얼마이며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는 영웅으로, 잠깐 일군으로 자라난 사람들은 또 그 얼마이던가.

이 땅에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역사의 새시대, 주체시대가 펼쳐지고 인민의 모든 꿈과 희망

이 찬란히 꽃피는 사회주의박람이 일떠서게 된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이라는 대지위에 서있을 뿌리시키고 한평생 가꾸어 마련하신 고귀한 결실이다.

라방구의 승려 1종 87인민반에서 살고있는 비승정동무가 떠진 마로까지 성장할수 있었다고, 바로 그래서 새해가 오면 어떻게든 가족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인사를 드린다고 격정을 터치었다.

김철주사범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자제간인 정진, 정경동무들의 심정도 절절하였다.

가족과 함께 태양의 성지를 찾은 그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조국과 인민앞에 쌓으신 영원불멸할 업적이 있기에 후대들을 기우는 교육자가 되고싶은 자기들의 소중한 꿈도 활짝 꽃피울수 있는것이라고 하면서 이곳에 들어서면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들의 행복찬 앞날을 따뜻이 축복해주시는것만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비록 길지는 않지만 소박하고 친정이 넘치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불을 깊은 생각에 이끄었다.

위대한 그 품에 안겨 갈수록은 삶의 자욱을 새긴 사람들은 얼마이며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는 영웅으로, 잠깐 일군으로 자라난 사람들은 또 그 얼마이던가.

이 땅에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역사의 새시대, 주체시대가 펼쳐지고 인민의 모든 꿈과 희망

을 매지 못하는 절도성에서 사업하고있는 막심일동무도 만났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원세만세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싶을것이 우리 인민모두의 간절한 심정을 불태우시며 역사에 뚜렷한 선군의 광경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어가신 선군 광장이 있어 이 땅에는 인민의 행복 넘친 웃음소리가 끊이지 울려 퍼질수 있었을것이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선군의 기치는 최대의 인민중심, 인민중심이었고 인민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우러러 밧걸음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 떠날수 있었는가 하는 군심으로 마음이 부겨워진다고 하신 때 정말 이지 눈물이 앞을 가리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총칭하게

발돋우어가는 인민의 창천 총부, 총실한 심부름군이 될것을 엄숙히 맹약한다고 하신 때 우리 일군들이 어떤 자세와 필증을 가지고 사업해야 하는가를 더욱 심장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뜻깊은 올해의 새년사에서 인민에 대한 열사부투의 정신을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 떠날수 있었는가 하는 군심으로 마음이 부겨워진다고 하신 때 정말 이지 눈물이 앞을 가리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총칭하게

발돋우어가는 인민의 창천 총부, 총실한 심부름군이 될것을 엄숙히 맹약한다고 하신 때 우리 일군들이 어떤 자세와 필증을 가지고 사업해야 하는가를 더욱 심장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뜻깊은 올해의 새년사에서 인민에 대한 열사부투의 정신을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 떠날수 있었는가 하는 군심으로 마음이 부겨워진다고 하신 때 정말 이지 눈물이 앞을 가리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총칭하게

발돋우어가는 인민의 창천 총부, 총실한 심부름군이 될것을 엄숙히 맹약한다고 하신 때 우리 일군들이 어떤 자세와 필증을 가지고 사업해야 하는가를 더욱 심장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뜻깊은 올해의 새년사에서 인민에 대한 열사부투의 정신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태양상에 새해를 맞으며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주제 106(2017)년 새해를 맞으며 온 나라 천만군민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고있다.

새해의 첫 아침 전국각지에서 높이 추조 여려 나라의 비록 국제기구대표를, 무관할을 비롯한 외국손님들과 조국에 제후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1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무장번영과 민족민단의 행복을 위하여 인민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인고 절세위인들의 필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용불에서 그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려였다.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은 온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용불에서 그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려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용불에서 그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려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용불에서 그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려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용불에서 그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려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용불에서 그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려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용불에서 그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려였다.

조선인민군 제4차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장군님의 필상이 모셔져 있는 용이더욱 활짝 꽃피어갈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은 회의 참가자들은 한평생 우리 군인과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불멸불후의 헌신과 로고로버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는 영생용불에서 그들이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신인 조국방위에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었음을 마음속으로 이으며 삼가 인사를 드려였다.

그들은 절세위인들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필상이 모셔져 있는 용이더욱 활짝 꽃피어갈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은 회의 참가자들은 한평생 우리 군인과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불멸불후의 헌신과 로고로버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는 영생용불에서 그들이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신인 조국방위에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었음을 마음속으로 이으며 삼가 인사를 드려였다.

그들은 절세위인들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필상이 모셔져 있는 용이더욱 활짝 꽃피어갈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은 회의 참가자들은 한평생 우리 군인과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불멸불후의 헌신과 로고로버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는 영생용불에서 그들이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신인 조국방위에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었음을 마음속으로 이으며 삼가 인사를 드려였다.

그들은 절세위인들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필상이 모셔져 있는 용이더욱 활짝 꽃피어갈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은 회의 참가자들은 한평생 우리 군인과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불멸불후의 헌신과 로고로버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는 영생용불에서 그들이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신인 조국방위에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었음을 마음속으로 이으며 삼가 인사를 드려였다.

그들은 절세위인들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필상이 모셔져 있는 용이더욱 활짝 꽃피어갈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은 회의 참가자들은 한평생 우리 군인과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불멸불후의 헌신과 로고로버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는 영생용불에서 그들이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신인 조국방위에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었음을 마음속으로 이으며 삼가 인사를 드려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려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해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려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해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려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해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려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해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려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해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려였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마흐무드 아바스 각하

나는 팔레스티나혁명가시 52년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팔레스티나인민에게 뜨거운 전우적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무드스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상설권을 포함하여 합법적인 민족적권리를 되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정당한 투쟁과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적 협조관계가 변함없이 계속 강화발전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체106(2017)년 1월 1일 평양

뜻깊은 새해를 맞이한 인민의 기쁨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린 지난해를 총정의 70일전후와 200일전후의 빛나는 승리로 결속한 커다란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온 나라 원만 군민이 새해 주제106(2017)년 을 맞이하였다.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정이 흐르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크나큰 감격과 흥분속에 받아안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 제7차대회 결집을 앞둔 시점에서 강국건설의 위대한 실재로써 따라 평범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갈 믿음의 신념과 결연한 한데에 넘쳐 명철을 뜻짓는 경축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기적의 2016년 항해를 통하여 비상히 양양된 혁명적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뜻깊은 올해에 당 제7차대회 결집을 앞둔 시기적절한 결집을 이룩함으로써 인민의 건강과 꿈을 이 땅에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영상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제 의 최고령도자 김수산태양궁전으로 새해 첫 아침부터 사람들의 물결이 끊이지 않아서 흥분되었다.

한없이 정진한 마음으로 광장 공원이 울려서 그들은 혁명의 대성인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라 삼가 인사봉 올리였다.

민주체언력과 정성시, 강계시, 청진시, 함흥시, 원산시 등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찾아 인민군행렬, 각계 종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경도의 장을 표시하였다.

우리 당과 조국역사에 특기할 혁명정경사의 새, 위대한 전환의 해인 지난해 한해를 감회깊이

추억하며 새해를 맞이한 군중들의 가슴가슴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그대로 이어서여 이 땅에 인민중시, 인민중중, 인민사랑의 대정신을 말없이 수놓아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정에 넘쳐있었다.

중앙과 지방에서는 경축공연들이 진행되었다.

모란봉극장에서 국립교향악단 음악회가 있었다.

관현악 《내 나라의 푸른 하늘》, 관현악곡 《김정은장군에 영광을》, 남성독창 《한마음 따르겠습니다》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선곡의 기치높이 주제조선의 존엄과 위엄을 세계민방에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의 영광을 드렸다.

봉화예술극장무대에 오른 국립민족예술단의 무용곡목 《황금의 내 나라》가 민족의 고유한 정과 흥겨움, 선율로 인민의 꿈과 비상을 꽃피는 내 조국의 번창 현실을 생동하게 펼쳐보인것으로 하여 관중들의 열광을 받았다.

평양대극장과 국립연극극장의 무대에 펼쳐진 혁명극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연극》의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감동적일뿐 아니라 지녔던 불굴의 신념을 굳게 전진하고 결사의 정신으로 단결적 관람에 펼쳐나갈 불같은 의지를 가슴깊이 새겨주었다.

평양교예극장에서 진행된 국립교예단의 종합교예 《안락의 나라 노래》와 오솔극장의 유물극연도 명절을 즐기는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에게 희열과 평안을 더해 주었다.

어머니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날때 강성조선의 역군으로 씩씩하게 지라나고있는 새세대들이 부르는 《새상에 부림없어라》 노래소리나 내 나라의 맑은 하늘가에 평범히 울려져왔다.

새해를 맞으며 각 도학생소년들의 실마리공연 《실마리 내려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열두달》, 《축복의 실마리》 등이 함흥대극장, 황해남도예술극장, 배음의 천리길학생소년군정들을 비롯한 여러곳에서 진행되었다.

노래와 춤 《경애하는 원수님께 실마리 드려요》, 가무 《원수님 우리 함께 춤을 추셨죠》, 기악곡 주 《조선을 위하여 배주요》 등의 종목들에서 학생소년들은 대원수님들을 모셨던 행렬의 추억을 그리며 위대한 태양의 추억에 지덕제를 겸비한 앞날의 기동강들로 역세게 자라나고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잘 보여 주었다.

김일성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과 함흥시, 강계시, 사리원시, 개성시에서 벌어진 학생소년들의 민속놀이 이색을 띠었다.

일찍이, 댕치기, 제기차기, 윷놀이 등의 경기들에서 신비한 춤의 승격을 하는 행렬들이 아이들의 모습에서 내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각계 종근로자들은 고마운 어머니당을 받들어 더 많은 일을 할 결의 마음을 다지였다.

각지의 봉사활동도 명절을 즐기는 사람들도 흥성하였다.

목욕관, 청류관, 평양민속, 강흥관 등을 찾은 손님들은 평교국수, 노루불고기를 비롯한 갖가지 요리들을 맛있게 즐겼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함흥의 신흥관, 사리원의 경안관, 개성의 민족식당 등 각지 금강봉사기지에서 온 손님들에게 특산물들을 봉사하였다.

지난해 전화위부의 기적이 장조된 조국방 북면현리의 사회주의보급지리에서 행복의 노래소리나 그칠줄 몰랐고 각지의 군민들은 요람들에서 그들 한결같이 마음껏 뛰노는 원아들의 얼굴마다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각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스승과 선배들, 다양한 이웃들과 친척, 친구들을 찾아 새해인사를 나누며 조국의 부강민업에 적극 이바지해나갈 굳은 약속을 다지였다.

위대한 어머니의 추억속에 또 다시 밝아온 희망찬 새해의 전진길에서는 온 나라 인민은 어머니당을 대한 불타는 총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총괄받아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해 폭풍노도처럼 나아가는 주제조선의 영웅적기사와 분배를 다스린 한결같이 피사한 필승의 신심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눈썹이 실감마디에 받아안은 강서약수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나는 한해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의 승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더욱 꽃피워갈 굳은 결의에 넘쳐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당을 진심으로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재일재부로 소중한 간직할것이며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질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미래의 희망찬 모든것을 당겨 올릿입니다.』

강서약수공장은 우리 인민을 위해 끝없는 로고를 바치신 백두산일세위들의 불멸의 명도자우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여러가지 명치표에 소용과 있어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진 강서약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에 의하여 비로소 우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용될수 있게 되었다.

강서약수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높은 긍지와 자랑을 안고 지난해 총정의 200일전후기간에 약수생산을 힘있게 다그치면서 전진적생산공정을 현대화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완강한 투쟁을 벌려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우리 당의 승고한 인민사랑을 더 활짝 꽃피워갈 결의와 안고 약수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년간계획을 지난해 10월말까지 훨씬 넘쳐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생산공정의 현대화, 무전화, 무공해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시간당 수백개의

인민사랑의 승고한 뜻 높기 받들어

강서약수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눈썹이 실감마디에 받아안은 강서약수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나는 한해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의 승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더욱 꽃피워갈 굳은 결의에 넘쳐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당을 진심으로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재일재부로 소중한 간직할것이며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질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미래의 희망찬 모든것을 당겨 올릿입니다.』

강서약수공장은 우리 인민을 위해 끝없는 로고를 바치신 백두산일세위들의 불멸의 명도자우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여러가지 명치표에 소용과 있어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진 강서약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에 의하여 비로소 우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용될수 있게 되었다.

강서약수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높은 긍지와 자랑을 안고 지난해 총정의 200일전후기간에 약수생산을 힘있게 다그치면서 전진적생산공정을 현대화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완강한 투쟁을 벌려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우리 당의 승고한 인민사랑을 더 활짝 꽃피워갈 결의와 안고 약수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년간계획을 지난해 10월말까지 훨씬 넘쳐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생산공정의 현대화, 무전화, 무공해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시간당 수백개의

통과능력을 갖춘 새로운 통약수생산설비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 설치하였으며 현대과학기술을 기초한 제곱점사설비와 열공설비를 장안제작하고 투개의 작업현장에 대한 무전화를 완성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이 제시한 전투적업무를 높이 받들고 공장총공명위원회에서 그 완성을 위한 투쟁으로 일군들과 총일원들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왔다.

특히 약수의 생산량을 높여 인민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생산동력전과 약수의 질과 위생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자강적열의를 정신을 발휘하여 높은 수준의 생산을 보아 높은 눈높이에서 큰 전진이 이루어졌다.

새해의 첫 아침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심히 더 높이 떠날수 있었는 가 하는 큰오로 마음이 두겨워진다 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슴뜨거운 말씀을 품어오르는 격정속에 받아안은 공장 일군들과 총일원들.

그들은 지금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승고한 뜻을 신심있게 받들고 뜻깊은 올해에도 생산적양양의 불꽃을 더 세게 켜지도록 불같은 열정에 열매를 맺었다.

공장에서야는 지역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칠때 대한 신년사의 전투적요호를 높이 받들고 과학연구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여 자체의 기술력향상을 위한 투쟁을 벌여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해 한사합안이 펼쳐나갔다.

【특약기자 주창선



뜻깊은 새해명절을 즐겁게 보내고 있는 수도의 학생소년들 - 김일성광장에서 - 본사기자 김진혁 특약

전진하는 사회주의, 인민의 밝은 앞날을 여기서 그려본다

새해를 맞으며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평양얼음조각축전 - 2017을 보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앞길을 밝혀주고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결집 단결의 위력이 있는 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뜻깊은 양력설의 명절분위기를 더해주시는 김일성광장에서 평양얼음조각축전 - 2017이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아름다운 형식의 눈얼음올라려

인민의 환희와 내 조국의 기상

추천장의 중심에 얼음조각으로 형성된 만경대고향관과 백두산 일명고향집, 불멸의 꽃 김일성화

로 불려서인 추천장위에서 우리와 만만 분화성 일군인 김유철동무는 이번 축전에 위원회,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70여개의 단에서 출품한 수십점의 특색있는 얼음조각들과 100여점의 눈얼음조각들이 전시되어있다고 말했다.

눈얼음올라려에 서있는 커다란 눈사람도 역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는것만 같아 흥그머워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추천장의 중심에 얼음조각으로 형성된 만경대고향관과 백두산 일명고향집, 불멸의 꽃 김일성화

각종도 참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주었다.

인민군대가 앞장서서 황금색의 벽사를 내뿜는 수산부문의 성과를 보여주는 얼음조각에서는 기쁨에 넘쳐 사냥을 즐기는 사냥꾼들도 있었고 풍라공 등어관과 중앙동물원, 미래과학자거리의 아바트를 형상한 얼음조각을 보며 당의 풍속이 우리 인민이 누리는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다시금 들어오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체육장에서 전시한 얼음조각을 보면 주제조선의 체육인들을 상징한 우리의 미려한 체육인들의 군상이 다시금 떠오르고 국가를 질강독위회에서 전시한 얼음

조각을 보면 국산화면 명예를, 명상품으로 우리의것을 더욱 빛내이려는 열의가 느껴졌다.

추천장에 전시된 얼음조각들은 참으로 많은것을 시사해주었다.

그 하나하나의 얼음조각들은 대를 이어 태양을 누리는 인민의 환희,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일심전결하여 지난해 우리의것을 창조해가는 공지와 자랑

평양풍을 형상한 얼음조각에서 우리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평양시간으로 전진하는 내 조국의 기상을 발레주듯 풍소리가 울려나오는 그 얼음조각에서 내 민족의 만만년역사와 찬란한 문화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명도를 나는 동당시대에 더욱 빛을 뿌린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울렁이였다.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서 내놓은 이 얼음조각이나 아니라 추천장에 전시된 모든 얼음조각들이 우리의것에 대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비껴있었다.

국가사관제반에서 형성한 얼음조각을 보니 지하자원이 많은 내 조국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왔다. 조선지도를 형상한 커다란 얼음판에는 지역별광물분포도가 특색있게 형성되어여 누

여 총정의 70일전후와 200일전후에서 거둔 승리에 대한 찬탄 자부심이 비껴있었다. 전진하는 사회주의조선의 역군 이상을 만방에 펼쳐진 천만군민의 불같은 열, 희망찬 새해에 더 큰 위업을 창조하고 승리를 또다시 만나자는 뜨거운 약속도 어려웠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새로운 추천장이었다.

우리의것을 창조해가는 공지와 자랑

평양풍을 형상한 얼음조각에서 우리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평양시간으로 전진하는 내 조국의 기상을 발레주듯 풍소리가 울려나오는 그 얼음조각에서 내 민족의 만만년역사와 찬란한 문화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명도를 나는 동당시대에 더욱 빛을 뿌린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울렁이였다.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서 내놓은 이 얼음조각이나 아니라 추천장에 전시된 모든 얼음조각들이 우리의것에 대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비껴있었다.

국가사관제반에서 형성한 얼음조각을 보니 지하자원이 많은 내 조국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왔다. 조선지도를 형상한 커다란 얼음판에는 지역별광물분포도가 특색있게 형성되어여 누

우리의것을 창조해가는 공지와 자랑

평양풍을 형상한 얼음조각에서 우리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평양시간으로 전진하는 내 조국의 기상을 발레주듯 풍소리가 울려나오는 그 얼음조각에서 내 민족의 만만년역사와 찬란한 문화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명도를 나는 동당시대에 더욱 빛을 뿌린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울렁이였다.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서 내놓은 이 얼음조각이나 아니라 추천장에 전시된 모든 얼음조각들이 우리의것에 대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비껴있었다.

국가사관제반에서 형성한 얼음조각을 보니 지하자원이 많은 내 조국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왔다. 조선지도를 형상한 커다란 얼음판에는 지역별광물분포도가 특색있게 형성되어여 누

우리의것을 창조해가는 공지와 자랑

평양풍을 형상한 얼음조각에서 우리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평양시간으로 전진하는 내 조국의 기상을 발레주듯 풍소리가 울려나오는 그 얼음조각에서 내 민족의 만만년역사와 찬란한 문화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명도를 나는 동당시대에 더욱 빛을 뿌린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울렁이였다.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서 내놓은 이 얼음조각이나 아니라 추천장에 전시된 모든 얼음조각들이 우리의것에 대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비껴있었다.

국가사관제반에서 형성한 얼음조각을 보니 지하자원이 많은 내 조국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왔다. 조선지도를 형상한 커다란 얼음판에는 지역별광물분포도가 특색있게 형성되어여 누

의 청년학생들은 40여시간 동안에 훌륭한 얼음조각을 형성하여 추천장에 내놓을수 있었다.

어찌 이뿐만이랴.

전자공업성의 일군들은 추천장을 찾는 사람들이 즐겨온 거품으로 얼음조각들을 감상할수 있게 커다란 액정메이커로 설치하였으며 대동구역 문화고급학교 교원 김일성동무와 학교의 미술안학생들도 추천장을 이룩해 장식하기 위해 열정적 지원을 다 바쳤다. 학원지도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인민정경이 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얼음조각추천준비를 충성하였다.

이런 뜨거운 마음들이 모여, 이번 열정과 지혜가 합쳐져 뜻깊은 양력설의 명절분위기를 한층 더해주시는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평양얼음조각축전 - 2017이었다.

수많은 참관자들로 흥성하는 추천장을 나서며 우리는 위대한 태양의 빛바람에 사회주의의 밝은 앞날을 그려본다. 이에 감동한 추천준비위원회에서는 청년학생들이 마음껏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도록 적극 도와주었다.

그렇게 되어 김일성종합대학

오늘 우리 조국의 이르는 빛마디에서는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하고있는 아름다운 소생의 주인공들이 수없이 배출되고있다. 그들중에는 온산군 북진건설사업소 로동자 김철동무도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석이 땅속에 묻혀있어도 빛을 잃지 않는것처럼 애국의 마음은 그것이 비록 크지 않아도 귀중함이며 언제나 아름다움은 빛나고 있다.』

새해의 첫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격정속에 받아안은 그의 가슴은 새치게 두렷하였다.

뜻깊은 새해의 총진군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전태들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며 나아가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되새김수록 애국의 헌금, 보탬의 환골을 더욱 억세게 되살릴 결의가 솟아올랐다.

그는 우리 청년들을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총진군대오의 최후대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에 새겨안고 원수님의 명도를 총정으

로 만들어나가는 길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갈 결의를 굳게 다졌다.

그러는 그에게는 보탬의 마음 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며 결코 고집된 결함이 들어있지 않았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온산군 제1중학교(당시)를 최우수의 성적으로 졸업하고 함흥화학공업대학(당시)에 입학하여 학업에 열중하던 김철동무는 뜻밖의 사고로 대학공부를 더 할수 없었다.

입원당시 그의 상태는 매우 위급하였던. 대외발골과 방목공과관련, 심한 뇌막과 허리마...

18살, 조국을 위해 피뎠는 청춘을 바쳐야 할 나이에 집애에 편인 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의 가슴은 천만길대로 찢기는듯 하였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덕에 평범한 로동자의 아들인 김철동무에게 소생의 기쁨, 청춘의 평안을 되찾아주었다.

3년만에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다. 김철동무는 고마운 어머니당,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위하여 보탬

집집을 기르는 등 지원물자를 마련하는 일을 적극 찾아하였다.

한해두해가 흐르는 속에 집집을 기르느라 바빠서, 하지만 직장 일을 하면서 집집을 기르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힘에 부치지 않아 아무 없었다. 때로는 고일로 쓰러질 때도 있었고 안정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권고도 있었지만 시작한 일에 그만두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가정을 마련한 많은 지원물자들을 어머니에게 걸고 618건설동맹원들에게 보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고, 위대한 태양의 대담으로 헌신하며 높이 받들어 모시기 위한 사업에 매달린 마음을 나타냈다.

그는 나날을 돌이켜보며 수백 배는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자책이 그의 가슴을 새치게 두렷하였다.

애국충정의 한길을 변함없이 곧바로 걸어가리라.

그의 심장은 보탬의 일념, 애국의 일념으로 새치게 두렷하였다.

그는 새해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명도를 총정으 받들어 부강민업향 내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할 불같은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본사기자 송성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주체혁명사상 일찌기 없었던 위대한 변혁의 새 역사를 창조하며 하루하루를 격동적인 투쟁의 날과 밤으로 빛내인 2016년을 보내고 새해 2017년을 맞이합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중생꽃무늬상징의 꽃매대에 기쁨과 희망, 사랑과 정이 넘치는 우리 생활의 한 단면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크나큰 격정과 흥분속에 받아안은 수도의 근로자들은.

위대한 인민이 안아온 자랑찬 기적의 위대한 한해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는 뜻깊은 자리에서 당과 사상이 뜻도 의지도 하나가 되어 기쁨과 아름다움에 나누고 생사명명을 같이하며 역사에 투여한 단단한 신념을 웃으며 해치는 전제 조선인민에게 가장 슬며시 마음속에서 뜨거운 인사를 보내며 희망찬 새해의 영광과 축복을 삼가 드린다고 뜨겁게 말합시다 경애하는 원수님.

천만군민이 하느님처럼 믿고 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주체혁명사상 일찌기 없었던 위대한 변혁의 새 역사를 창조하며 하루하루를 격동적인 투쟁의 날과 밤으로 빛내인 2016년을 보내고 새해 2017년을 맞이합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중생꽃무늬상징의 꽃매대에 기쁨과 희망, 사랑과 정이 넘치는 우리 생활의 한 단면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크나큰 격정과 흥분속에 받아안은 수도의 근로자들은.

위대한 인민이 안아온 자랑찬 기적의 위대한 한해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는 뜻깊은 자리에서 당과 사상이 뜻도 의지도 하나가 되어 기쁨과 아름다움에 나누고 생사명명을 같이하며 역사에 투여한 단단한 신념을 웃으며 해치는 전제 조선인민에게 가장 슬며시 마음속에서 뜨거운 인사를 보내며 희망찬 새해의 영광과 축복을 삼가 드린다고 뜨겁게 말합시다 경애하는 원수님.

천만군민이 하느님처럼 믿고 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주체혁명사상 일찌기 없었던 위대한 변혁의 새 역사를 창조하며 하루하루를 격동적인 투쟁의 날과 밤으로 빛내인 2016년을 보내고 새해 2017년을 맞이합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중생꽃무늬상징의 꽃매대에 기쁨과 희망, 사랑과 정이 넘치는 우리 생활의 한 단면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크나큰 격정과 흥분속에 받아안은 수도의 근로자들은.

위대한 인민이 안아온 자랑찬 기적의 위대한 한해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는 뜻깊은 자리에서 당과 사상이 뜻도 의지도 하나가 되어 기쁨과 아름다움에 나누고 생사명명을 같이하며 역사에 투여한 단단한 신념을 웃으며 해치는 전제 조선인민에게 가장 슬며시 마음속에서 뜨거운 인사를 보내며 희망찬 새해의 영광과 축복을 삼가 드린다고 뜨겁게 말합시다 경애하는 원수님.

천만군민이 하느님처럼 믿고 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주체혁명사상 일찌기 없었던 위대한 변혁의 새 역사를 창조하며 하루하루를 격동적인 투쟁의 날과 밤으로 빛내인 2016년을 보내고 새해 2017년을 맞이합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중생꽃무늬상징의 꽃매대에 기쁨과 희망, 사랑과 정이 넘치는 우리 생활의 한 단면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크나큰 격정과 흥분속에 받아안은 수도의 근로자들은.

위대한 인민이 안아온 자랑찬 기적의 위대한 한해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는 뜻깊은 자리에서 당과 사상이 뜻도 의지도 하나가 되어 기쁨과 아름다움에 나누고 생사명명을 같이하며 역사에 투여한 단단한 신념을 웃으며 해치는 전제 조선인민에게 가장 슬며시 마음속에서 뜨거운 인사를 보내며 희망찬 새해의 영광과 축복을 삼가 드린다고 뜨겁게 말합시다 경애하는 원수님.

천만군민이 하느님처럼 믿고 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주체혁명사상 일찌기 없었던 위대한 변혁의 새 역사를 창조하며 하루하루를 격동적인 투쟁의 날과 밤으로 빛내인 2016년을 보내고 새해 2017년을 맞이합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중생꽃무늬상징의 꽃매대에 기쁨과 희망, 사랑과 정이 넘치는 우리 생활의 한 단면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크나큰 격정과 흥분속에 받아안은 수도의 근로자들은.

위대한 인민이 안아온 자랑찬 기적의 위대한 한해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는 뜻깊은 자리에서 당과 사상이 뜻도 의지도 하나가 되어 기쁨과 아름다움에 나누고 생사명명을 같이하며 역사에 투여한 단단한 신념을 웃으며 해치는 전제 조선인민에게 가장 슬며시 마음속에서 뜨거운 인사를 보내며 희망찬 새해의 영광과 축복을 삼가 드린다고 뜨겁게 말합시다 경애하는 원수님.

천만군민이 하느님처럼 믿고 따



꽃매대에 넘치는 우리 생활의 향기 - 본사기자 송성철 특약

세계가 우러러보는 존엄높은 나라, 필승불패의 강국

국 제 사 회 계 의 찬 양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이 땅위에 세상을 놀래우는 경이적인 사면들과 기적들이 다발적으로, 면발적으로 일어난 주제 106(2017)년은 주제조선의 존엄과 국력이 만방에 파시된 글자높은 해였다.

세인울 경탄시키는 위대한 기적의 나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영도따라 세계를 주름잡으며 필승불패의 전진하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목격할 김일성김정일김일주의 기적의 무서운 기적의 본디는 자기의 실정들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예로부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해가는 조선의 모습은 그야말로 신비경이이다.

지역발흥과 중앙동원력을 비롯한 만년대기의 융성한 창조물들을 짧은 기간에 완공하였다니 실로 놀랍기만 하다.

남들 같으면 열백배도 더 주저없이 엄청난 인력과 시련을 감당하며 착하고 단결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나가는 조선의 힘과 기적은 정말 대단하다.

비약과 기적이라는 말의 함축을 자기 위업에 대한 정당성을 확신하고 최후한 때를 향해 신심들이 나아가는 강성한 조선의 모습이 아닐까?

말레이시아의 《광명일보》는 이렇게 전하였다.

조선에서는 황금해의 새 역사가 창조되고있으며 시대를 더료

과 말이 흘러온 이 나날 진보적인 인류는 자와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승승장구해나가는 우리 조국을 자랑적으로 부흥하는 강대한 나라, 인민의 모든 꿈과 이상이 찬란히 꽃피어나는 인민의 나라로 열렬히 격찬하였다.

위대한 기적의 나라

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아름다운 사회주의기적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건설의 대변영기가 펼쳐지고있다.

김정은각하께서 펼치신 사회주의혁명전쟁의 웅대한 설계도가 열매를 맺고있다.

만마르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건설의 위대한 기적의 나라이다.

반복이 꽃피어나는 인민사학, 후대사망의 대화원

《조선에서 보고 느낀 것이 새롭고 잊지 못할 사실들이어서 마치도 꿈나라에 온 기분이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이르는 곳마다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른 기념비적건축물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이 문명을 향유하는 주민공들이 다름아닌 평범한 근로자들과는 다르다.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자기의 원리를 마음껏 행사하는 조선과 같은 나라, 이런 이상향이 또 어디에 있었겠는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을 위하여 열사부하는 조선의 정치는 모든 나라가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이다.》

백동에서도 곁잡혔어 자기 힘을 믿고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조선의 북부지역에서는 혼연 일체의 거대한 위력으로 만공의 해를 기시고 사회주의 새 기리, 새 마을들이 만천하에 솟아오르는 전화위부의 기적이 또다시 창조되고있다.

김정은영도자께서는 조선의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높은 자아로운 명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이아말로 세상인지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후대사학, 미래사망의 대화원이다.

김정은영도자께서는 조선의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높은 자아로운 명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이아말로 세상인지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후대사학, 미래사망의 대화원이다.

김정은영도자께서는 조선의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높은 자아로운 명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이아말로 세상인지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후대사학, 미래사망의 대화원이다.

반복이 꽃피어나는 인민사학, 후대사망의 대화원

《조선에서 보고 느낀 것이 새롭고 잊지 못할 사실들이어서 마치도 꿈나라에 온 기분이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이르는 곳마다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른 기념비적건축물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이 문명을 향유하는 주민공들이 다름아닌 평범한 근로자들과는 다르다.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자기의 원리를 마음껏 행사하는 조선과 같은 나라, 이런 이상향이 또 어디에 있었겠는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을 위하여 열사부하는 조선의 정치는 모든 나라가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이다.》

연구 전국위원회 인리네트웍에는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남에남마다 면모를 일신시켜 나가는 조선이 세계의 주목을 끌고있다.

김정은영도자께서는 조선의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높은 자아로운 명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이아말로 세상인지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후대사학, 미래사망의 대화원이다.

김정은영도자께서는 조선의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높은 자아로운 명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이아말로 세상인지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후대사학, 미래사망의 대화원이다.

김정은영도자께서는 조선의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높은 자아로운 명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이아말로 세상인지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후대사학, 미래사망의 대화원이다.

반복이 꽃피어나는 인민사학, 후대사망의 대화원

《조선에서 보고 느낀 것이 새롭고 잊지 못할 사실들이어서 마치도 꿈나라에 온 기분이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이르는 곳마다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른 기념비적건축물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이 문명을 향유하는 주민공들이 다름아닌 평범한 근로자들과는 다르다.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자기의 원리를 마음껏 행사하는 조선과 같은 나라, 이런 이상향이 또 어디에 있었겠는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을 위하여 열사부하는 조선의 정치는 모든 나라가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이다.》

정없이 자라나고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원아들에게 제일 좋은것을 다 안겨주시는 김정은동지의 다신한 육성의 정과 사랑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새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시는 자아로운 명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이아말로 세상인지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후대사학, 미래사망의 대화원이다.

김정은영도자께서는 조선의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높은 자아로운 명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이아말로 세상인지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후대사학, 미래사망의 대화원이다.

김정은영도자께서는 조선의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높은 자아로운 명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이아말로 세상인지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후대사학, 미래사망의 대화원이다.

김정은영도자께서는 조선의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높은 자아로운 명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이아말로 세상인지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후대사학, 미래사망의 대화원이다.

반복이 꽃피어나는 인민사학, 후대사망의 대화원

《조선에서 보고 느낀 것이 새롭고 잊지 못할 사실들이어서 마치도 꿈나라에 온 기분이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이르는 곳마다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른 기념비적건축물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이 문명을 향유하는 주민공들이 다름아닌 평범한 근로자들과는 다르다.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자기의 원리를 마음껏 행사하는 조선과 같은 나라, 이런 이상향이 또 어디에 있었겠는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을 위하여 열사부하는 조선의 정치는 모든 나라가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이다.》

방문의 나날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조선의 인민중시정책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김정은동지의 다신한 육성의 정과 사랑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김정은영도자께서는 조선의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높은 자아로운 명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이아말로 세상인지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후대사학, 미래사망의 대화원이다.

김정은영도자께서는 조선의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높은 자아로운 명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이아말로 세상인지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후대사학, 미래사망의 대화원이다.

김정은영도자께서는 조선의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높은 자아로운 명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이아말로 세상인지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후대사학, 미래사망의 대화원이다.

반복이 꽃피어나는 인민사학, 후대사망의 대화원

《조선에서 보고 느낀 것이 새롭고 잊지 못할 사실들이어서 마치도 꿈나라에 온 기분이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이르는 곳마다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른 기념비적건축물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이 문명을 향유하는 주민공들이 다름아닌 평범한 근로자들과는 다르다.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자기의 원리를 마음껏 행사하는 조선과 같은 나라, 이런 이상향이 또 어디에 있었겠는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을 위하여 열사부하는 조선의 정치는 모든 나라가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이다.》

인민을 위하여 특히 녀성들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억만금도 아끼지 않는 조선의 당과 정부의 시책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김정은동지의 다신한 육성의 정과 사랑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김정은영도자께서는 조선의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높은 자아로운 명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이아말로 세상인지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후대사학, 미래사망의 대화원이다.

김정은영도자께서는 조선의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높은 자아로운 명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이아말로 세상인지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후대사학, 미래사망의 대화원이다.

김정은영도자께서는 조선의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높은 자아로운 명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이아말로 세상인지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후대사학, 미래사망의 대화원이다.

반복이 꽃피어나는 인민사학, 후대사망의 대화원

《조선에서 보고 느낀 것이 새롭고 잊지 못할 사실들이어서 마치도 꿈나라에 온 기분이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이르는 곳마다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른 기념비적건축물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이 문명을 향유하는 주민공들이 다름아닌 평범한 근로자들과는 다르다.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자기의 원리를 마음껏 행사하는 조선과 같은 나라, 이런 이상향이 또 어디에 있었겠는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을 위하여 열사부하는 조선의 정치는 모든 나라가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이다.》

우리 조선인민은 침략과 전횡을 일삼고있는 미국의 책동에 단호히 맞서나가고있다.

김정은동지의 다신한 육성의 정과 사랑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김정은영도자께서는 조선의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높은 자아로운 명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이아말로 세상인지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후대사학, 미래사망의 대화원이다.

김정은영도자께서는 조선의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높은 자아로운 명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이아말로 세상인지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후대사학, 미래사망의 대화원이다.

김정은영도자께서는 조선의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높은 자아로운 명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이아말로 세상인지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후대사학, 미래사망의 대화원이다.

반복이 꽃피어나는 인민사학, 후대사망의 대화원

《조선에서 보고 느낀 것이 새롭고 잊지 못할 사실들이어서 마치도 꿈나라에 온 기분이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이르는 곳마다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른 기념비적건축물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이 문명을 향유하는 주민공들이 다름아닌 평범한 근로자들과는 다르다.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자기의 원리를 마음껏 행사하는 조선과 같은 나라, 이런 이상향이 또 어디에 있었겠는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을 위하여 열사부하는 조선의 정치는 모든 나라가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이다.》

고 통과 맞이 한

피혁적제당의 만민적통치로 신음해는 남조선인민들이 새해를 기다란 봄날에 맞이 하였다.

제철들이 로동자, 직인들의 임금을 깎아 박근혜, 최순실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또 다른 착취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초래된 파국적파괴는 온 남녘땅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말미암고 남조선인민이 밝힌데 의하면 박근혜가 이전에 제철들을 만나 미드, K스코프제철들에게 임금을 깎아주고 그 대가로 또 다른 착취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초래된 파국적파괴는 온 남녘땅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말미암고 남조선인민이 밝힌데 의하면 박근혜가 이전에 제철들을 만나 미드, K스코프제철들에게 임금을 깎아주고 그 대가로 또 다른 착취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초래된 파국적파괴는 온 남녘땅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말미암고 남조선인민이 밝힌데 의하면 박근혜가 이전에 제철들을 만나 미드, K스코프제철들에게 임금을 깎아주고 그 대가로 또 다른 착취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초래된 파국적파괴는 온 남녘땅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말미암고 남조선인민이 밝힌데 의하면 박근혜가 이전에 제철들을 만나 미드, K스코프제철들에게 임금을 깎아주고 그 대가로 또 다른 착취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초래된 파국적파괴는 온 남녘땅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절망속에 남조선

으며 1000만명에 달하는 만일업자들은 언제 해고될지 알수 없는 불안한 봄날에 맞이 하였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새해를 인민들

들까지 과산하기에 처하게 하려 결국 12만 4000여명의 로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게 하였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제국주의 침략야망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세해를 맞이한 사람들은 복잡다단한 국제정세 흐름속에서 지난해 2016년 12월의 나날들을 돌이켜보고있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미국은 고위직자들은 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력과 무장력에 대해 높은 경각심을 계속 높여놓으며 전쟁발발사, 도발사로서의 그들의 정체를 가리우려고 교활하게 행동하였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에

경정된 팔레스티나 영토에서 모든 정착촌확장행동을 중지할것을 요구해나갔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안하무인적으로 놀아내었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세계 최대의 전범피해 저지른 일본은

《광명일보》에 의하면 최순실은 피혁군의 인사문제를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보고서가 발견되었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에

경정된 팔레스티나 영토에서 모든 정착촌확장행동을 중지할것을 요구해나갔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안하무인적으로 놀아내었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남조선의 경제는 절망속에 있다. 지난해 9월 청년실업률이 올해의 최고치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올랐다.

사회가 바로설 때까지 초불은 꺼지지 않을것이다

남조선 전지역에서 10차 범국민 행동 전개, 110만여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

보도들에 의하면 박근혜적제당을 심판하기 위한 10차 범국민행동이 지난해 12월 31일 박근혜《정권》의 비상국면행동의 주체로 남조선의 전지역에서 일제히 전개되었다.

110만 4000명 이상의 각계층 군중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서울의 각계층 단체들과 시민들은 이날의 투쟁을 《승락명신》《박근혜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다》로 명명하고 초불집회에 앞서 광화문광장과 주변에서 양대《정권》을 완전히 전지시키기 위한 다양한 투쟁을 벌였다.

시민들은 작은 종이배들로 《세월》호를 형상한 큰 배를 만들고 여기에 《(세월)호를 전복시키라》, 《박근혜정권 죽자 피전》 등의 글들을 써넣었다.

종이배를 보면서 시민들은 올해가 권력을 가진자들과의 세상이었다면 내일은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었다. 박근혜《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를 바란다. 《세월》호를 7시간 전상구경

과 함께 학생들이 편안하기를 바란다. 자기들의 심정을 비추었다.

《헌법재판소》에 박근혜판결을 요구하는 열서를 보내는 운동용 물리면서 시민들은 새해에 박근혜《정권》이 즉시 퇴진하고 《국정》을 막아내라는 대대적인 결의가 이루어질수 있게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목소리를 거를 기술있음을 요구하였다.

또한 제철, 비정규직, 만민적통치적제당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헌법재판소》에 박근혜판결을 요구하며 청와대와 《총리》를 탄핵, 《헌법재판소》의 100만까지 행진하였다.

100만명의 각계층 군중이 모여 광장은 거대한 초불바다를 이루었다.

《정권》을 전지시키기 위한 다양한 투쟁을 벌였다.

시민들은 작은 종이배들로 《세월》호를 형상한 큰 배를 만들고 여기에 《(세월)호를 전복시키라》, 《박근혜정권 죽자 피전》 등의 글들을 써넣었다.

종이배를 보면서 시민들은 올해가 권력을 가진자들과의 세상이었다면 내일은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었다. 박근혜《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를 바란다. 《세월》호를 7시간 전상구경

과 함께 학생들이 편안하기를 바란다. 자기들의 심정을 비추었다.

《정권》을 전지시키기 위한 다양한 투쟁을 벌였다.

시민들은 작은 종이배들로 《세월》호를 형상한 큰 배를 만들고 여기에 《(세월)호를 전복시키라》, 《박근혜정권 죽자 피전》 등의 글들을 써넣었다.

종이배를 보면서 시민들은 올해가 권력을 가진자들과의 세상이었다면 내일은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었다. 박근혜《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를 바란다. 《세월》호를 7시간 전상구경

과 함께 학생들이 편안하기를 바란다. 자기들의 심정을 비추었다.

《정권》을 전지시키기 위한 다양한 투쟁을 벌였다.

시민들은 작은 종이배들로 《세월》호를 형상한 큰 배를 만들고 여기에 《(세월)호를 전복시키라》, 《박근혜정권 죽자 피전》 등의 글들을 써넣었다.

종이배를 보면서 시민들은 올해가 권력을 가진자들과의 세상이었다면 내일은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었다. 박근혜《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를 바란다. 《세월》호를 7시간 전상구경

과 함께 학생들이 편안하기를 바란다. 자기들의 심정을 비추었다.

《정권》을 전지시키기 위한 다양한 투쟁을 벌였다.

시민들은 작은 종이배들로 《세월》호를 형상한 큰 배를 만들고 여기에 《(세월)호를 전복시키라》, 《박근혜정권 죽자 피전》 등의 글들을 써넣었다.

종이배를 보면서 시민들은 올해가 권력을 가진자들과의 세상이었다면 내일은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었다. 박근혜《정권